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2. 15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UN 대테러 수장, “ISIS 퇴치, 아직 자만할 때 아니다”
 - 2.12 「보론코프」 UN 대테러사무차장은 현재 ISIS의 중심세력은 이라크·시리아에 약 14,000~18,000명의 병력(외국테러 전투요원 3,000명 포함)이 있고, 현금이나 기업투자 등을 통해 5,000만~3억 달러에 이르는 작전비용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
- 국제사법재판소, 이란 제기 ‘美 동결자산 환원소송’ 관할권 인정
 - '16.4월 美 정부가 대법원의 ‘테러공격의 희생자 배상’* 판결을 근거로 이란 자산 20억 달러(2조 2,436억원)를 동결하자 이란이 ICJ(국제사법재판소)에 제재철회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국제소송을 제기('18.7월), 2.13 ICJ는 同 재판소가 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
 - * 사우디아라비아 코바르 타워스 폭격('96년, 19명 사망), 베이루트 美 해병대 막사 폭격('83년, 241명 사망)

아·태평양

- 日, 영어권 첩보동맹 ‘파이브 아이즈’(Five Eyes)와 공조 강화
 - 소프트뱅크 및 NTT도코모 등 일본 통신업체들이 美·英 등 5개국 안보동맹체인 ‘파이브 아이즈’*와 함께 중국제 5G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일본이 同 안보동맹체와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
 - * 美·英·加·濠·뉴질랜드간 통신정보수집·공유협력체로 혈맹 이상의 관계를 유지

○ 필리핀, ISIS와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형

- 2.7 英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내 ISIS 점령지 100% 탈환을 공언했지만, 필리핀 남부지역에서는 ISIS의 추종 반군단체인 ‘마우테 그룹’*에 의한 ’17.5월 민다나오섬 마라위市 점령사태(사망 1,000여명), ’19.1월 홀로섬 성당 폭탄테러(사망 27, 부상 111명) 등 아직도 ISIS와의 치열한 전쟁이 한창이라고 보도

* ’13년 민다나오섬 지역에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된 테러단체

유럽

○ 터키, 테러조직 가담혐의로 전·현직 경찰관 1,112명 체포영장 집행

- 2.12 앙카라 검찰청은 ’10년 ‘팻홀라흐 테러조직’*이 경찰조직에 대거 침투하도록 경찰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전·현직 경찰관 1,11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발표

* 터키 대통령의 정적인 재미 이슬람학자 「팻홀라흐 귄렌」을 추종하는 세력

○ EU, ‘돈세탁·테러자금지원국 블랙리스트’에 북한 등 선정

- 2.13 유럽연합(EU) 집행위원회는 북한을 비롯해 이란, 시리아, 사우디아라비아 등 23개국을 돈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국으로 잠정 지정해 발표

* 돈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 위험으로부터 EU의 금융시스템 보호목적

중 동

○ 시리아민주군, ISIS 최후거점 막바지 총공세

- 2.9 AP통신은 시리아민주군(SDF)이 미군의 지원 아래 ISIS의 최후 거점인 시리아 동부 데이르에조르州 바구즈에 대한 막바지 총공세에 돌입했다고 보도

* 최후거점에 ISIS전투원 600여명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

덴마크 코펜하겐 총격테러

- '15.2.14~15 덴마크 코펜하겐 시내에서 2건의 총격테러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
 - 첫 번째 총격사건은 2월 14일 문화센터에서 '샤를리 에브도' 테러*에 대한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 발생(사망 1명, 부상 3명)
 - *'15.1.7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풍자주간지 '샤를리 에브도' 사무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총기 난사로 12명이 사망, 무함마드 만평에 대한 보복 테러로 분석
 - 두 번째 총격사건은 첫 총격이 발생한지 약 10시간 후인 15일 새벽 2시경 시내 유대교 회당 인근에서 발생(사망 1명, 부상 2명)
- 용의자 추적과 경계 강화에 나선 경찰은 15일 오전 노레브로역 인근에서 감시활동을 하던 중에 총을 쏘며 저항하던 용의자를 사살
 - 사살된 22살의 이슬람계 청년 「오마르 엘-후세인」은 폭력과 무기 사용 등의 전과자로서 2주전 출소하였으며
 - '샤를리 에브도' 테러와 ISIS의 선전물에 영감을 받아 연쇄테러를 벌인 이른바 '외로운 늑대' 라 불리는 자생적 테러범으로 추정

< 외로운 늑대(Lone Wolf) >

- 외로운 늑대(Lone Wolf)
 - (정의) 정부 또는 특정 조직에 대한 반감으로 극단주의 단체의 이데올로기나 신념 등에 자발적으로 동조하는 배후세력 없는 자생적 테러리스트
 - (유래) 본래 1996년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공화국 키즐랴르를 기습한 체첸반군을 일컫는 말이었으나, 1990년대 중반 미국의 극우 인종주의자 엘릭스 커티스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행동을 선동하면서 용어를 사용한데서 유래
 - (특징) ISIS 등 테러단체의 선전·선동에 심취해 외부 지원 없이 스스로 테러를 준비·실행, 테러공격 준비·방식 등 사전 징후를 포착하기 쉽지 않고 '로테크·소프트타깃'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대형 인명피해 초래 소지